

2016 대전MBC 캠페인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사회,
대전MBC가 함께 합니다

moc
STORY
대전MBC 뉴스로그
<http://blog.tjmbc.co.kr>

대전MBC
Weekly

m-STORY

제41호
2016년
2월 24일

창간 2015년 5월 22일 발행 대전MBC 대전광역시 유성구 액스포로 161 대전문화방송(주)

발행인 이진숙 편집주간 오승용 경영심의부장 우경수

전국의 소식 내 손안에 있소이다~

대전MBC <전국이 보인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 우리 이웃의 소식을 전하는 대전MBC <전국이 보인다>(연출: 김종훈)는 대전을 비롯해 대구, 부산 등 16개 지역 계열사와 공동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언제 어디서든 안방에 앉아 전국 각지의 소식과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감사하게도 시청자의 반응은 좋은 편이다.



▲완주의 오래된 향기를 찾아서-한옥성당 (2월 7일 방송)



▲경남 거제 펑귄수영축제 (2월 14일 방송)

전국의 축제, 생활 정보, 사람 사는 이야기

<전국이 보인다>의 장점은 한 편을 보고 나면, 대중잡지 한 권을 읽은 것 같은 '재미'와 '정보'에 있다. 16개 계열사에서는 대략 매주 2편의 영상물을 보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전국이 보인다> 아이템은 6개를 선정한다. 누군가는 '아무거나'로 볼 수 있지만 아이템을 고르는 '나름의 기준'은 있다. 일단, 소비속도가 빠른 요즘 시청자에 맞춰 대체로 호흡이 긴 것보다는 빠른 것을, 보다 생동감 있는 소식을 우선한다. 또한, 휴일에 방송되는 점을 고려해 기행이나 맛집에 대한 소개는 빼놓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실제적인 정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눈으로, 마음으로 떠나는 여행도 좋지 않던가.

수줍은 봄꽃 같은 그녀, MC 유경원

<뉴스데스크>와 <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기상캐스터로 매일 아침 날씨 정보를 전하고 있는 유경원 씨는 <전국이 보인다> 프로그램에선 MC로 활약하고 있다. 김도연, 박송이 기상캐스터에 이어 <전국이 보인다> MC로 낙점된 건 지난 12월의 일. 새내기 진행자로 '잘 해낼 수 있을까'하는 시선도



▲<전국이 보인다> 유경원 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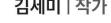
▲여수 구산 엿마을을 가다 (2월 21일 방송)



▲셀프인테리어 (2월 28일 방송)

러운 목소리가 듣보였기 때문이다. 봄꽃처럼 수줍게 웃는 그녀는 알고 보면 순수한 매력까지 갖췄다. 지금도 카메라 앞에서 늘 긴장하지만, 끊임없는 연습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가겠노라 다짐하는 그녀.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전국이 보인다>를 찾는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매주 화요일! <전국이 보인다> 소풍가는 날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전국이 보인다> 팀은 소풍을 가듯, 회사 밖으로 촬영을 나선다. 장소는 계절별로 다르게 선택된다. 봄과 가을은 한밭수목원, 유립공원 등 꽃과 나무가 많은 아름다운 배경 속으로, 여름과 겨울은 우리 지역 미술관이나 갤러리를 찾아가고 있다. 프로그램이 오래돼서인지 어느 곳으로 전화해도 촬영팀을 알아보고 반갑게 맞이해준다. 품격 있는 전시회를 보고,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전국이 보인다> 촬영 현장은 즐거운 소풍을 떠나듯, 활기로 가득하다. 매주 일요일 아침, <전국이 보인다>와 함께 휴일을 상쾌하게 시작해보자. 

김세미 | 작가

<전국이 보인다>

2월 28일(일) 방송



청춘이라 불리다오

-나이보다 젊게 사는 60대의 위대한 도전

셀프인테리어

-봄맞이 집단장을 위한 셀프인테리어 골팁

세상에 이런 일이

-땅에서 솟아나는 '역고드름'

맛집 식객단

-맛집의 흥수 속에 진짜 맛집을 찾아 나서는 대구의 '식객단'을 찾아서

잔치 잔치 열렸네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전북 장수의 한 마을에서 펼쳐진 세찬 고기축제

아이들 입맛 사로잡는 마법의 레시피

-까다로운 아이들 입맛을 잡는 마법의 레시피 소개

<전국이 보인다>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10분~9시 10분 (60분 간)

연출: 김종훈 구성: 김세미 진행: 유경원



3·1절 97주년 기념 제18회 나라사랑한마음 걷기대회

3·1절 97주년 기념 제18회 나라사랑한마음 걷기대회가 국립현충원 고장 충남 천안에서 열린다. 오는 3월 1일 오전 10시 30분 천안독립기념관 거례의 큰마당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3·1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걷기대회와 함께 만세재현 행사가 개최된다.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독립기념관 앞 목천나들목 4km 구간에서 펼쳐지게 될 이번 행사는 참가비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1절 만세운동 재현과 함께 결의문 채택 등이 진행돼 그날의 합성과 민족혼을 다시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 주최 : 나라사랑국민운동본부, 대전MBC
- 일시 : 2016년 3월 1일(화) 오전 10시 30분
- 모이는 곳 : 천안 독립기념관 거례의 큰마당
- 코스 : 독립기념관 앞 목천나들목 왕복 4km
(약 1시간 소요)
- 행사내용 : 개회, 국민대통합만세대행진(걷기대회), 만세재현, 폐회 및 경품권 추첨, 태극기달기운동서명, 특별기획전, 각 전시관 관람 등

CEO 칼럼



대전MBC 사장 이진숙

지난 20일과 21일 대전MBC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공동 주최한 박람회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주제는 '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였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3포', '5포'를 넘어 'N포'로 불리는 세대가 요즘 청년들입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해야 하는 사실상 '무한 포기' 세대로 불리는 세대입니다. 한 편으로 자조적이고 한 편으로 냉소적인 이 말 속에는 우리 시대 젊은 이들의 아픔이 담겨있기도 합니다.

행사를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막상 장이 펼쳐졌는데, 청년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면 어찌나 하는 걱정에서부터 대전MBC가 마련한 콘텐츠가 제대로 작동할 것

"나는 일하고 싶다"

인가 하는 우려까지, 조바심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의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공식 개막식이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를 동안 8천 명에 육박한 방문객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코이카의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단 상담부스가 특히 주목을 끌었습니다. 해외봉사단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어느 나라로 가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부스에 몰려 두 경세 겹으로 줄을 섰습니다. 상당수 상담원들이 배치가 되었는데도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한참 기다리다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일부 있었습니다.

눈에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가 주제였지만 50~60대 중년층도 해외봉사단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연구기술단지가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 ICT(정보·통신·기술) 쪽에 종사했다가 은퇴한 고급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문의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봉사 상담부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부스에만 천여 명이 찾았더니 말입니다. 수

명은 점점 늘어나서 '백세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청년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중장년층이 인생 2막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초청 인사들의 특강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세계 최초 8천 미터 이상 16좌 등반에 성공한 엄홍길 산악인은 청년들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의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많은 실패를 했다. 안나푸르나에서만 네 번 실패했고 다섯 번 만에 성공했다고 소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모습만 보면서 그가 운이 좋아 성공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그는 38번의 도전 가운데 18번의 실패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도전과 도전을 거듭하면서 끝내 16좌 최고봉을 올랐다는 것 이지요. 필자가 킬리만자로에서 걷는데 자신 있다며 기후 적응 과정을 밟지 않아 정상을 앞두고 고산병에 걸렸고 결국 포기해야 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자 엄홍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절대 오만해서는 안 됩니다. 산은 결손해야 성공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요."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등 해외 진출 기

업들과 계룡건설, 맥스컴퍼니 등 지역 기업의 부스에도 청년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린이 벼룩시장에 참여한 어린이들도 해외 봉사와 해외 진출에 대해 일찌감치 배우지 않았을까요?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마련된 에일리와 VIXX의 공연을 보려고 개막 전날 밤부터 수백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고 3백 명에 이르는 학창단원의 노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중간 중간 진행된 상식 퀴즈는 신선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대전MBC-코이카 박람회는 지역 언론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우리는 "나는 일하고 싶다"는 사람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2회 박람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후원으로 시작된 일자리 찾기 박람회가 정보에 목마른 지역민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행사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직원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❶

열정 대전MBCian 스토리

'오픈 저널리즘'으로 새로운 방송 시대 모색해야

과거에는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최고가 아니고요. 미래는 더 어려워지겠죠.

전문직이라 생각하고 변화에 맞춰 노력하며 일해 왔는데 변화의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자 생활 20년 동안 기술의 진보와 사회구조가 혁신적으로 변함을 목도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갈 듯 하던 공중파가 더 거대한 플랫폼을 가진 포털에게 밀려나고 있고 뉴미디어가 그 자리를 메워가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란 말이 실감나는 순간이다. 생존이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변화해야하는가. 오픈 저널리즘을 표방하는 영국의 기디언이나 미국 뉴욕타임즈 등에서 기자와 독자들이 모바일, 웹 사이트에서 스토리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미래 저널리즘의 모델을 보여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잘 만 들어진 영상뉴스를 지향한다는 점이다. 영화와 같은 고품질의 영상과 다큐멘터리와 같은 리얼리티가 독자들을 시청자

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인터넷의 공간에선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이란 구분이 없다. 모두가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 내고 소비한다. 이와 구별되기 위해선 깊이 있는 의미를 함축한 영상 한 컷 한 컷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가디언의 '파이어스톰(Fire Storm)' 기사를 보면 역시 기존 형식을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는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독자들을 주목시킨 새로운 인터랙티브 저널리즘(Interactive Journalism)이 적용된 사례이다.

이 기사는 태즈메이니아섬(Tasmania)에서 2013년 발생한 산불과 그 속에 있는 홉스(Holmes) 가족의 이야기를 소재로 제작되었다. 화면 하나하나에 집중하도록 폴스크린(Full-Screen)으로 배치하였다. 이 속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도시 전체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담았다. 독자들은 마우스를 내리면서 도시에서 벌어진 일과 그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다. 한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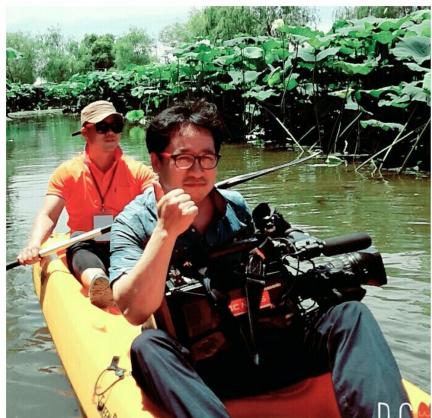
좋은 영상을 만들어 내고 시청자와 공유하고 시청자를 만들어낸 영상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기획 단계부터 시청자를 참여시키고 편집에도 참여시키는 등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SBS나 JTBC 등에서 오픈 저널리즘을 시



도하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발등의 불끄기へ 급급한 현실에서 고품질의 영상을 만들어 내는 것을 개인의 역량으로 돌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시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를 잘 모아내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보다 새롭고 깊이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시청자의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 시청자와 함께 만드는 영상에 대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시청자의 욕구가 흠페이지에 올라와도 눈과 귀를 닫아 외면하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시청자와 직업방송인이 협력하는 저널리즘의 단계(grade)로 올라서지 않는 한 새로운 방송의 시대를 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청자들이 똑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❷



김훈 | 편집제작국 영상부

건강지킴이 닥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으로 하세요

예로부터 건강한 치아는 오복(五福) 중의 하나라 했을 만큼 치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치아는 한번 망가지면 재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치아와 잇몸이 건강할 때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심한 충치와 치주질환, 풍치 등으로 인해 치아와 잇몸이 망가지면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발치 후 치료하는 것이 인접치이나 잇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에도 건강보험보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 치아만큼 좋은 것은 없겠지만 치아가 상실되면 차선책으로 입안에 끼웠다 뺏다 할 수 있는 형태의 틀니나 인공치근을 식립하여 보철을 수복한 뒤 자연치아처럼 사용하는 임플란트 치료가 있습니다.

틀니

틀니란 자연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치아에 끼우거나 뺄 수 있는 인공치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체 틀니, 부분 틀니의 시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완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로지 잇몸으로 틀니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힘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2~4개의 임플란트 시술 후 임플란트에 고정시켜 치료하는 틀니 임플란트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남아있는 치아에 같고리 모양의 장치나 단추모양의 어태치를 제작하여 틀니의 유지력을 증가시킵니다.

처음 틀니를 끼면 잇몸이 아프거나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

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틀니 착작 후 나타나는 변화는 정상적인 것이고 적응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씩 수정하면 점차 편안하게 틀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새 틀니로 음식을 제대로 씹으려면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므로 처음엔 잘 썬 연한 음식을 좌우 골고루 천천히 씹어야 합니다. 잇몸은 꾸준하게 흡수되고 조금씩 그 모양이 변하기 때문에 틀니가 점점 더 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틀니에 치석 또는 치석 등으로 깨끗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기적인 검사와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합니다.



▲틀니 시술 전과 후

임플란트

임플란트란 결손된 치아의 수복을 위한 보철물을 지지하기 위해 턱뼈 안이나 위에 고정체를 식립하는 치료를 말합니다. 환자의 치조골 상태에 따라 발치 후 즉시 식립하는 경우, 1~2개월 후 식립하는 경우, 3~6개월 후 식립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수술방법은 임플란트 인공치근과 보철연결나사를 동시에 식립하는 방법과 임플란트 인공치근을 먼저 식립한

후 골유착이 완료되면 보철연결나사를 식립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치근 매식단계부터 보철수복단계까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현재 만 70세 이상인 경우 7년에 한 번 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임플란트는 만 70세 이상 가운데 치아가 하나라도 있다면 평생 2개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치조골이식술, 상악동거상술 등의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경우 본인부담금이 추가로 발생하며, 전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내과의사나 정형외과의사와의 협진을 통해 안전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합니다. 2016년 7월부터는 틀니와 임플란트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보장이 확대될 예정이니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치아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어태치 : 치아에 압수 단주 같은 것을 달아서 틀니를 고정시키는 것



도움말

이도훈
치의학 박사
이엘 치과병원 원장

리포터

김용삼 대전MBC의료포털 닥터(www.drmbc.com)

방송가 사람들

설치와 분해의 미학, 무대 위 세트를 소개합니다.



김봉선 무대감독
2003년 입사

튼튼하게, 분해할 땐 조심스럽게. 아, 예전에 “신조요? (몸으로) 하면 된다!”

소품을 빼 먹었던 적은 있었어요. 저 혼자만 “세트 일은 요령이 8할이에요. 3미터짜리 기둥도 드는 방법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거든요. 백날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마리 좋은 친구는 금세 적응하는 게 세트 일이죠. 처음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다음 날 허리가 아프다며 하루 일하고 관두는 일이 다반사예요. 허허 몸으로 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다구.”

평소 산악자전거를 즐긴다는 김 감독은 누구보다 몸 쓰는 일엔 자신 있다. 방송국에선 물론 퇴근 후 집에서도 몸을 아끼지 않는다고.

“인테리어와 설비, 보수, 심지어 빨래도 제 뜻이에요. 아, 물론 100% 자발적인 것이라 결 강조하고 싶군요. 집안일은 기본이고 지인들 이사에도 불려 다녀요. 절 이사 대행업체 틈으로 아는지(무임으로 엄청 부려 먹어요 하다). 듣고 살면 좋죠. 뭐.”

조명도 없는 세트 뒤에서 일하지만 언제나 긍정적인 김 감독. 말수는 적지만 그의 얼굴엔 사람 좋은 미소가 늘 배어있다. 작은 실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늘 긴장해야 하는 세트 작업이지만 이 일이 재밌단다. 원체 조립하고 설계하며 뭔가를 만드는 작업을 좋아했던 김 감독인자라 무대감독은 자신의 성향과 끝 맞는 직업이란 것.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대전MBC 스튜디오가 일하기 편리한 장소라는 점도 일을 즐겁게 만들어요. 공개홀과 세트실 이동 경로가 우리만큼 짧고 최적화된 곳이 없거든요. 다른



방송사에서 일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감탄요. 세트실과 공개홀을 오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는 방송국도 있답니다.”

‘세트꾼’이라면 모두 다 부러워할 일터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니 어찌 아니 기쁠까. 그래서일까, 김 감독이 세트를 분해하며 나르는 저 커다란 벽조차도 가벼워 보인다. 오늘도 무대 위의 세상을 설계하고 해체하는 김 감독의 휘파람 소리가 그의 전동 드릴 소리처럼 경쾌하기만 하다.❷

안시언 | 작가

“철거가 아닙니다, ‘분해’하는 거죠. 몇 번이고 다시 설치해야 하니 분해할 때 더 조심해서 작업해요.”

3미터는 족히 넘을 것 같은 육중한 세트 기둥을 번쩍 들어 올리며 김봉선 무대감독은 대꾸한다. 혼자 들기 벽자 보였건만 ‘철거’와 ‘분해’의 차이를 친절하게 짚어주며 빈 몸처럼 가뿐하게 무대 위를 활보한다.

제1회 한빛대상 무대, 가장 기억에 남아

낭비라곤 찾을 수 없는 노련하고 숙련된 움직임. 〈허참의 토크&조이〉 녹화가 끝난 무대는 전기 드릴 소리 몇 번으로 어느새 사라지고 만다. 허참 아저씨가 안방처럼 편하게 토크쇼를 진행했던 무대가 이리도 쉽게 분해되다니, 혹시 부실공사는 아닐까?

“하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동안 세트 문제로 사고가 난 적은 없었어요. 설치할 땐



〈건강 플러스〉, 〈시사 플러스〉, 〈토크&조이〉 등, 대전MBC에서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세트 대부분이 그의 손끝에서 만들어진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은 무대를 꼽아달라고 하니 〈제1회 한빛대상〉이라 주저 없이 말한다.

“상 자체에 의미가 있잖아요. 자랑스러운 대전 시민에게 박수를 쳐 주는 자리니까요. 정말 정성 들여 무대 구석구석을 꾸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면으로 봤을 때도 멋졌고요. 엄지 척, 들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편집기획 정종건 조형찬 편집위원 이재우 김지훈 이재근 최종명 디자인 / 인쇄 (주)인더스토리

M사모의 한마디

이명의 변호사
대전MBC 경영자문위원

얼마 전 유치원에 다니는 팔 아이의 얼굴에 좁쌀만 한 것 이 여러 개 났습니다. 그 당시 저는 바쁘다는 핑계로 ‘곧 팬 찰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냥 두었습니다. 그렇게 일주 일 정도 지났는데 팔아이의 얼굴이 불과 몇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방치한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바로 피부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본 피부과는 성형과 미용을 주로 하는 곳이기에 피부과 전문 의를 찾아 조금 멀리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접수를 하는데 간호사가 ‘30분 이상 기다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스마트폰을 하다가 잡지도 보고 TV도 봤습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부를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우리보다 먼저 온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나 ‘30분이 넘었는데도 왜 진료하지 않느냐’고 짓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급하기로 소문난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런 암전히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선은, 간호사가 미리 ‘30분 이상’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기다림이 어느 정도 예상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성격 급한 사람 몇 명 정도는 재촉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 의사에게 진료를 받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환자들은 그렇게 1시간 동안 아무 불평 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삼갓집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기차를 타기 위

지역을 넘어 세계로!

해 대전역에 들어서는 순간 대합실 한쪽에 사람들의 긴 줄이 보였습니다. 표를 구매하기 위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대략 짐작했지만 대전에서 유명하다는 뺨집의 뺨을 사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물론 불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왜 긴 줄을 만들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 유명한 뺨을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불평없이 기다리는 이유는 그 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 그런 것이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대전MBC에게도 던져 봅니다. 대전MBC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

대전MBC는 그동안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지역 콘텐츠를 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전MBC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무언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보령시하면 머드 축제가 떠오르고 그 축제로 인해 지역경제까지 살고 있습니다. 미국영화에서 빼지지 않고 나오는 샌프란시스코의 문문교는 다리 하나에 지나지 않은데 그것에 스토퍼리를 입혀서 명물이 되었고 그것을 보기 위해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스타벅스 1호점은 3평 남짓한 허름한 가게이지만 1호점에서만 살 수 있는 텁블러와 1호점이 갖는 의미 때문에 사람들은 아침부터 줄을 섭니다. 그 무언가는 반드시 방송프로그램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박람회도 좋고 문화행사여도 좋고, 사옥 내에 있는 갤러리여도 좋습니다. 그 무언가로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면 그와 연결되는 콘텐츠는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런 생

각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대전MBC가 그동안 이룬 성과를 보면 역량과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이제 지역이라는 한계를 인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전MBC를 방문하기 위해 외국인들이 사옥 앞에 줄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물론 기대와 흥분은 표정으로서 있겠지요. 이렇게 대전MBC가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아니 세계 속에서 명품방송사가 되기를 고대합니다. 저는 그 옆에서 묵묵히 동행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전MBC!❷

대전MBC 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2월 15일(월) ~ 2016년 2월 21일(일)

1위	2위	3위
허참의 토크&조이	어영자 바다야	아침이 좋다
2월 16일	2월 19일	2월 18일
MBC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	MBC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	MBC 뉴스투데이 대전·세종·충남

대전MBC KOICA 박람회 8천여 명 찾아 지역-해외 일자리·봉사 활동 연계 프로젝트 ‘새 지평’



▲대전MBC 코이카 박람회 개막식 ‘비상하는 대한민국’ 퍼포먼스
대전MBC와 KOICA(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가 지난 20일 21일 이틀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대전MBC 청년 해외 일자리 찾기 프로젝트 KOICA 박람회(이하 대전MBC 코이카 박람회)’가 7,400여 명의 방문객이 찾는 등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전MBC 코이카 박람회는 특히 청년취업이나 중장년층의 인생2막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민들에게 해외 취업이나 봉사활동의 종류와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해 주는 최초의 프로젝트란 점에서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 원조를 받은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세계 20여 개국을 돋는 공여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원동력과 코이카를 통한 현재의 원조현황을 두루 둘러볼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코이카가 운영한 채용상담 부스와 WFK(World Friends Korea) 해외봉사 상담 부스, 중소기업 해외진출 부스(CTS, 중소기업 해외진출 부스)에만 1천

여 명의 학생과 중·장년층이 찾는 등 국내 대표기업과 연구소 등의 해외 취업 상담 부스에 수천여 명의 상담자가 찾아 큰 호응을 얻었다.

또, 대전이라는 지역적 이점 덕분에 부산이나 인천, 강원도, 전라도 지역 학생과 시민들도 참여하는 등 전국적인 반향과 관심을 받았고, 뜨거운 해외 취업·봉사의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저명인사의 강연은 청년들에게 희망과 감동의 메시지를 전해줬다. 히말라야 16장을 완등한 국내 산악인의 산 증인인 엄홍길 대장은 ‘청년에게 전하는 메시지, 도전’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히말라야의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하며, 청년들에게 ‘어떤 꿈이든 도전하면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도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엄홍길 대장과 나경원 의원(가운데) 이진숙 대전MBC 사장

나경원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Together We Can -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리더십’이라는 강연에서 젊은 나이에 자국의 정·재계를 주름잡고 있는 리더들을 소개하며, “미리가 아닌 가슴으로, 젊고 뜨거운 열정으로 정진하면 무엇이든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VIXX 축하공연

부대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다. 대전MBC 이진숙 사장을 비롯해,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나경원 의원, 이상봉 디자이너, 허참 MC 등이 참여한 애장품 경매에서는 수익금 전액이 코이카 ‘행복나눔 재단’에 전해졌는데, 엄홍길 대장이 내놓은 16좌 완등 당시 찰던 팔찌가 100만 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어린이 무상원조 벼룩시장’을 운영한 대전 공공형 어린이집 연합회(회장 박경숙)도 벼룩시장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을 코이카 ‘행복나눔 재단’에 기부해, 원조를 필요로 하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뜻을 밝혔다.

코이카와 대전시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지역 청년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돋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5월 충남대학교에 대전국제개발협력센터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해외 취업·봉사의 실질적인 콘트롤타워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영복 이사장(코이카)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개발도상국을 돋는 것이 단순한 자선이 아닌 국제적인 의무이고 우리의 생존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라며, 해외봉사의 참된 의미를 전했다.❷

조형찬 | 경영기술국 경영심의부